

【 국내금융 뉴스 】

손보업계 ‘자동차사고 공동대응시스템’을 도입 예정

-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 폭설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 피해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나, 일부 손보사의 경우 재해지역 보상매뉴얼 등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지난 10년간(‘98년~’07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조 9,702억원에 달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03.9월 태풍 매미로 785억원, ‘09.2월 설 연휴 중 폭설로 1,200억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됨.
 - 또한 사고처리가 각 회사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사 고객 차량에 대한 구조지원으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사고차량의 장기간 방치로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대규모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사고처리 및 복구지원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회사에 관계없이 사고 접수 또는 보상처리 안내 등이 가능한 통합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임.
 - 또한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재난우려 알림문자서비스를 확대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우려 지역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견인하는 등 피해 확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한 실무 T/F팀은 손보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등을 포함하는 세부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임.
- 향후 대재해 지역의 대량 자동차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대응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신속한 사고처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는 최소화되고 손보사의 보상기능에도 유기적인 통합운용으로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대재해시 자동차사고 공동 대응시스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 9/30)